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수빅의 산 속에 있으며 대학은 아니고 연수원 느낌이다. 건물의 크기는 5층으로 방이 엄청 많고 앞에 수영장이 있다. 앞의 시내(?)와 차로 15분 정도 떨어져 있고 걸어서는 꽤 먼 거리다. 산사태가 여파로 도로가 정비 가 안 되어있다. 걸어서 25분정도 내려가다 보면 편의점 하나가 있다. 주변에 새소리와 원숭이 소리가 항상 났다.</p>
수업	<p>처음 레벨테스트로 배정이 되며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1:1 수업이 총 4시간이고 단어가 2시간, 리딩이 2시간이다. 50분씩 각각 다른 선생님과 수업을 하게 된다. 그룹수업도 4시간이다. MMC, FacetoFace는 각각 50분, 토익스피킹은 오전, 오후로 같은 선생님에게 수업 받는다. 나는 과제가 거의 안 나갔다. 선생님들 대부분은 영어를 매우 잘하시지만, 발음이 매우 좋으신 분과 약간 필리핀 억양이 섞인 보통인 분의 차이가 꽤 있다. 처음에는 알아듣기 힘든 점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귀가 조금 트이기 때문에 대충 알아듣게 된다. 선생님들의 성격은 다들 활기차시고 재미있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책만 따라가기보다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보시고 그 부분을 중점으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룹끼리 MV와 광고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으면 할 만하다.</p> <p>1) 리딩수업 : 교재를 보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문장이 있으면 최대한 이해시켜주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레벨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모르는 단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거의 단어 수업이 되는 동시에 발음 교정 클래스가 되기도 했다. 또한 교재에서 나온 주제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그 주제를 가지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다.</p> <p>2. 단어수업 : 한 선생님과 20분 교재로 공부하고 계속 영어 스피킹을 했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가 잘 모르는 단어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무언</p>

	<p>가 있으면 교정을 해주셨고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은 대부분 교재로 수업을 했는데, 단어 책을 보고 모르는 단어를 미리 체크하고 선생님이 무슨 뜻인지 예시를 들어서 유추하는 것을 유도 하였고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주신 뒤 다시 그 단어를 이용하여 예시를 들 었습니다. 그리고 10분 썩 억양이나 헛갈리는 발음을 교정해주었다.</p> <p>3. 토익스피킹 실제 토익 스피킹 시험처럼 준비하는 수업이었다. 한 챕터를 공부한 뒤 항상 짧게 해당 범위만 테스트를 보았는데, 시험을 치룬 뒤 선생님이 잘 한 부분과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 해주었다.</p> <p>4. MMC수업 미디어 수업인데, 약간 가벼운 느낌의 수업이다. 각각의 비디오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나, 어떤 행동들을 분석하고 그랬는데 어이없는 말이라도 선생님이 잘 받아주신다. MMC수업에 광고와 MV를 째내서 찍기도 했다.</p> <p>5. FacetoFace수업 교재 진도를 별로 나가지 않았다. 교재에 의존하기보다 본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수업이었다.</p>
Activity	<p>수빅시내투어 : 많이 걷는다, 저녁은 게리스그릴에서 먹었다. 클락 SM 몰 : 수빅 SM몰보다 엄청 넓었고 시간이 모자랐다. 야트투어 : 요트 내에서 치킨과 맥주, 물을 먹었으며 바다에 들어 갈 사람들은 수영복과 속옷, 수건을 준비해야 한다. 화이트코랄리조트 : 전 학기 단기어학 연수 갔던 학생들이 다른 리조트에서 민폐를 보여서 여기로 되었다는데 음식 맛은 그냥 평범했고 바다와 수영장 풀이 있어서 역시 수영복과 수건, 속옷, 썸크림을 가져가야 한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날씨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에 속했다. 햇빛이 강할 때도 있었고, 흐린 날이 첫 주에는 대부분의 기억이라 생각보다 이런 날은 덤지가 않았다. 비가 오는 날은 여우비처럼 오다가 강한 장대비가 오다가 그치고를 반복했다. 하지만 우산을 쓴 적은 5번 이하였다. 가끔 바람이 많이 불고 구름이 많다.</p>
안전	<p>수빅 곳곳에 경찰들이 있어서 안전 위험을 받지는 않았고, 숙소에는 가드분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다. 다만 시내로 나갈 때는 횡단보도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야 한다. 돈 구걸하는 아이들은 무시해야 한다.</p>

숙소	<p>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p> <p>시설은 예전 건물이라 낡기는 했는데, 불편한 점은 크게 없었다. 다행히 운이 좋아서 어디 고장 난 적 없이 없었다. 그러나 때때로 벌레 (거미, 개미, 벌, 바퀴벌레, 나방)와 작은 하우스도마뱀이 나타난다. 방은 3인실로 되어 있고 책상과 옷장이 있다. 통금은 월~목, 일요일은 10시, 금토는 12시였다.</p>
식사	<p>학교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v) 기타()</p> <p>학교식당 : 요리사 분이 굉장히 요리를 잘하신다. 모든 음식의 간이 다 맞으면서 튀김류, 치킨이 맛있다. 아침은 빵이나 수프 등으로 매우 간단하게 나온다. 약간 식단이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외부식당으로 간단한 한끼로 망이나살이 싸고 맛있으며, 코코라임과 페퍼런치가 좋았다. 조금 시간이 있는 날은 수빅베이 근처에 위치한 익스트림리 익스프레스와 텍사스조에 가서 식사를 했다.</p>
교통	<p>수업이 끝나면 시내로 태워주는 샌딩 서비스가 있다. 택시를 부르거나 FB를 기다려야 하는데, 택시는 4명까지 200페소, FB는 14페소였다. 콜로 택시를 부르면 빨리 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FB가 먼저 오면 허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숙소로 돌아올 때는 줄리비 반대편의 미니스톱 앞 장소에서 타면 되는데 택시가 150페소, FB는 10페소 였다. 다만 택시는 인원수가 증가할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FB는 어떤 건 130페소 내면 바로 가기 때문에, 기다릴지 금액을 더 내고 바로 출발할지 선택하면 된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890,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비용	₩385,000	
클락항공세	600페소	1만3000원
합계	₩1,288,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장이 안 좋고 예민한 사람이 있다면 약을 잘 챙겨가지실 바랍니다. 물갈이는 아니지만, 소화불량에 잘 걸립니다. 또한 편지지가 제대로 된 게 없으니, 선물을 직접 한국에서 준비해서 가져와도 되지만 편지지는 꼭 사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수건(4,5개)와 드라이기, 고데기는 챙겨가야 합니다. 숙소에 나가면 다른 건물의 화장실들은 휴지가 없는 곳이 많아서 미리 숙소에서 휴지를 조금 챙겨 가는게 좋습니다. 휴지는 해당 현지 마트에서 사면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는 4주 안에 어떻게 영어 실력이 늘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당연히 확 실력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습니다만 8시간 동안 영어를 듣고 말하기 때문에 약간은 트립입니다. 처음은 뇌가 쉽게 피로함을 느낄 수도 있어도 금방 익숙해져서 8시간의 스파르타식의 수업도 적응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고 영어에 대한 흥미가 이전보다 증가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필리핀에 짧은 기간을 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예민한 편이라 음식이나 기숙사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했습니다. 워낙 매운 음식을 선호하는 편이라 필리핀은 매운 음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기숙사는 단체생활이라 개인의 영역을 많이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합니다. 그래도 어학연수를 선택한 점은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의 영어 생활을 이후로 이 느낌을 잃기 싫어서 집에 오자마자 영어 강의를 끊고 오래 하지는 않지만 30분씩 영어를 듣고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생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업이 도움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느꼈는데, 마지막 주가 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돈은 적당히 아끼고, 필요한 것만 사고, 술이나 다른 것들을 자주 사먹지만 않으면 충분히 400달러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벌레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필리핀이 많이 힘들 것 같지만, 방만 잘 배정되면 고장 나는 일도 거의 없고 벌레가 자주 출몰하지는 않을 겁니다. 필리핀 와서 바퀴벌레를 처음 봤는데 정말 손가락 마디로 두 마디 하고 조금 더 넘는 크기인데 가드 부르면 잘 잡아주셔서 괜찮습니다. 솔직히 도마뱀은 귀여운데 빠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도마뱀이 방에 나간 뒤로 모기나, 다른 벌레들과 조우했는데, 벌이 들어오면 잠시 불을 끄고 숙소 문을 열어두면 나갑니다. 이외 거미, 나방, 이름 모를 갈색 벌레는 휴지로 잡으면 됩니다. 아무튼 숙소 안에 도마뱀이 살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같이 사는게 좋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화이트코랄 리조트</p>	<p>그룹 수업</p>
	
<p>요트투어</p>	<p>수빅 투어</p>
	
<p>MMC 촬영</p>	<p>투어 저녁식사</p>